

'미나리'의 윤여정, 아카데미상 후보 물망

〈한국계 정이삭 감독의 미국영화〉



73세에도 끝없는 연기 변신·도전 고섬어워드 최우수연기상 후보
 바야돌리드영화제전 작품상 후보
 美·영선 "내년 아카데미 다크호스"

배우 윤여정이 해외 주요 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드라마 주연으로도 나선다. 세계시장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

할리우드의 한국계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의 미국영화 '미나리'에 참여한 윤여정은 최근 고섬 어워드의 최우수연기상 후보가 됐다. 고섬 어워드는 독립·예술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유력 영화상이다. 또 '미나리'를 스페인의 바야돌리드 국제영화제 작품상 후보에도 올려놓았다. 이 영화제는 1956년 시작해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시상해온 유럽의 권위 있는 무대이다.

'미나리'는 앞서 올해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드라마틱 경쟁부분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 등을 받았다. 또 미국 버

라이어티와 할리우드리포터, 인디와이어 등 주요 영화전문지들과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 등이 내년도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 후보작으로 꼽으며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후보로 예측했다. 특히 버라이어티는 최근호인 10일자에서도 윤여정을 비롯해 한여리, 스티븐 연 등이 아카데미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 가족의 삶을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 그린 영화에서 윤여정은 외할머니역을 연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를 시청 대상으로 하는 OTT인 애플TV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에서도 주연한다. 이민호와 함께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며, 최근 본격 촬영에 나섰다.

윤여정은 아카데미상 후보로 예측된 데 대해 "만약 못 올라가면 나는 (상을) 못 탄 게 되는 거 아니냐"며 솔직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직설적 화법처럼 윤여정은 그동안 거침없이 부당한 도전에 나서며 나이(73살)를 무색케 했다. 또 그 본격적인 성과도 얻고 있다. 해외시장을 겨냥한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70대의 나이에도 거칠 것 없는 연기 행보에 나선 윤여정이 해외에서도 이름을 얻고 있다. 사진은 10월 23일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출연작 '미나리'의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 | 부산국제영화제



환불원정대

막내린 환불원정대 연말시상식에 뜰까?

열정의 피날레 무대 시청률 11.2% 멤버들 "다시 뭉치자" 눈물의 인사

3개월 동안 각종 음원사이트를 씹살이하며 돌풍을 일으킨 프로젝트 그룹 환불원정대가 활동을 모두 끝냈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그룹을 결성한 만옥(엄정화)·천옥(이효리)·은비(제시)·실비(화사)는 14일 방송을 끝으로 시청자와 잠시 이별하며 연말 시상식 무대를 예고했다.

환불원정대는 10월29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진행된 프로그래밍 화하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에 앞서 '돈 터치 미(DON'T TOUCH ME)' 무대를 선보이고 14일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시구와 시타에도 나선 이들은 이를 마지막으로 13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피날레는 아름다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속에서 제작진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스페셜 무대를 펼쳤고, 이들은 온 힘을 다해 공연을 마쳤다.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해온 멤버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서로 부둥켜안고 고마움을 전했다.

환불원정대의 기획자이자 기획사 대표인 지미유(유재석)와 매니저 정봉원(정재형)·김지섭(김종민)도 함께 안았다. 천옥은 "우리가 다시 뭉치는 날 그쪽도 뭉치는 거죠?"라고 물었고, 지미유는 "당연하다"고 화답했다. 정봉원은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며 거듭었고, 김지섭은 "매니저여서 영광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는 14일 전국 시청률 11.2%(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또 한번 시청자와 소통에 성공했다.

이처럼 방송 내내 이슈를 몰고 다닌 덕분에 환불원정대는 방송가 섭외 1순위로 꼽힌다. 특히 이들이 "다시 한번 뭉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연말 MBC 예대상 등 시상식 무대를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배수지·남주혁 커플도 월드스타 시동

청춘의 꿈 그린 tvN '스타트업' 넷플릭스 글로벌 TV 차트서 9위

연기자 배수지(수지)와 남주혁 커플에 세계적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주연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는 물론 다양한 지역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며 한국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호주 등 영어권에서도 차츰 반향을 키우고 있다.

배수지와 남주혁의 무대는 현재 방송 중인 tvN 토일드라마 '스타트업'이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랭킹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첫 방송일인 10월17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공개돼 15일 현재 '글로벌 오늘의 TV프로그램' 톱 10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드라마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1위에 올랐고,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2위 등 5위권을 유지하며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또 페루, 온두라스 등 중남미 지역에서도 10위권에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서는 10위권 안팎에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어권에서도 영역을 넓힐 기세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해외에서도 성



tvN '스타트업'의 주연 남주혁(왼쪽)과 배수지. 이야기의 보편성으로 국내외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 | tvN

과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수지와 남주혁에 대한 관심도 높일 전망이다. 걸그룹 미쓰에이 출신으로 케이팝 스타이기도 한 배수지와 20대 젊은 연기자들

대표하는 남주혁은 감성 짙은 로맨스를 펼쳐내며 시청자의 지지를 얻고 있다.

두 사람은 '한국의 실리온벨리'를 표방하는 샌드박스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의 이야기에서 애잔한 감정을 넘나들고 있다. 참신한 벤처사업을 꿈꾸는 청춘이 꿈을 향해 달려가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설정과 함께 로맨스에 가족의 사연까지 덧입히는 보편적 스토리로 해외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질곡' 콘텐츠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OTT를 통해 얻은 성과라는 점은 이후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배수지와 남주혁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침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080-608-1010

스텝가미솔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기간: 2020.08.01 ~ 2020.12.31]
 * 필수 후 7일 이내 최소 20만 이상 상담 시 (개인별 배제)
 * 배움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 (연비 한함)
 * 당사 서비스 4대 부채 및 페이먼트 시 1년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자기 기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 조기 종결 시 다른 경로로 대체 발송됨

* 가입 후 1일부터 보장은,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일 2년 이내 전단 시 50% 보장)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류지급금을 합하여 1억 원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알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로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